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4. 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시리아內 ISIS 고위 지도자 등 사살
 - 4.17 美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부에서 헬기 등을 이용하여 ISIS 주거지를 급습, 유럽內 테러를 모의한 ISIS 고위 간부와 무장 대원 2명을 사살하였으며 미군과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

유럽

- 駐모스크바 핀란드 대사관에 정체불명 가루 담긴 우편물 배송
 - 4.14 언론은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駐모스크바 핀란드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가루가 우편물로 배송되었으며, 핀란드는 러 외무부에 통보 후 조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보도
 - ※ 핀란드는 지난 4일 NATO 회원국 가입에 성공했으며, 러시아는 핀란드의 가입 신청 당시부터 이를 러시아 안보의 위협이라며 불편한 감정 표출
- 네덜란드 정보기관, 자국內 안보 위협 평가
 - 4.18 정보보안국(AIVD)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에 증오·반유대주의·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, 이러한 위협은 지하디스트·극우 테러리스트·정부 적대세력들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

아·태평양

- 인도 조폭출신 前 의원, TV 생방송 중 총격으로 사망
 - 4.16 언론은 동생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「아티크 아흐메드」 前 연방의회 하원의원이 TV 생방송 인터뷰 중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며, 용의자 3명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고 보도
 - ※ 同人은 '80년대 후반 조폭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'09년도까지 활동

○ 日, '기시다 총리 폭탄 테러 미수사건' 수사 본격화

- 4.16 언론은 현지 경찰이 지난 15일 「기시다」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「기무라 류지」(24)의 자택에서 현장 폭발물과 흡사한 물체를 확인했으며, 범행동기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
 - ※ 현재 범인에게는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으나, 배낭에서 칼도 발견됨에 따라 범행과정에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예정

중 동

○ 적십자사, 예멘 정부軍-후티叛軍 간 포로 총 880여명 교환 발표

- 4.15 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는 예멘 정부軍과 후티叛軍의 포로교환이 결정되어 14일부터 3일간 포로 880여명의 석방이 진행되며, 정부軍 소속 사우디 군인 20여명과 수단軍이 석방포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
 - ※ 지난달 UN이 중재했던 포로교환은 2014년 叛軍이 예멘 북부와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 양측에서 교환하기로 한 포로들 중 일부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

○ 사우디, 이란에 이어 팔레스타인 '하마스'와도 관계 회복 시도

- 4.17 언론은 사우디가 중국 중재로 이란과 외교 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'하마스'와도 고위급 회담을 가지는 등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한편, 사우디가 하마스(對이스라엘 무장투쟁 주도)와 외교 관계를 회복할 경우,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이스라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동아프리카 5국 정상, '수단 내전' 격화에 정전협정 촉구

- 4.17 동아프리카 5개국 정상(케냐·남수단·우간다·지부티·소말리아)들은 긴급 회의를 개최, 지난 15일 수단 수도 하르툼市에서 수단 정부군↔반군 간 발생한 무력충돌*에 대해 교전행위 중단 및 정전협정 체결 촉구
 - * 양측은 '22.12월 정부군과 반군단체 신속대응군(RSF)의 통합에 합의하였으나 RSF측에서 일부 조항에 반발하며 재충돌, 19일 까지 사상자 3,000여명 발생

이스라엘, 이슬람 지하드에 의한 자폭테러 발생

- '06. 4. 17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샌드위치 판매점에서 「사메르 사미 하마드」 (17세)가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, 9명 사망 · 50여명 부상
 - ※ 현지 언론은 '12일부터 시작된 유월절 연휴로 인해 거리가 번화한 상태여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'고 보도
- 사건 직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'이슬람 지하드(PIJ)'가 테러배후를 자처하며 테러범의 유언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공개
 - ※ 범인은 유언에서 "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을 위해 폭탄테러를 감행하는 것"이라고 주장
- 同 테러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집권한 후 발생한 첫 자살폭탄 테러 사건
 - 하마스 대변인은 "이스라엘의 잔인한 점령정책 탓"이라며 테러를 옹호
 - 반면,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同 테러를 즉각 비난하였으며, UN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"하마스는 테러의 축"이라고 언급
- 또한, 이스라엘도 '명백한 전쟁 선포'라며 수시간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철공소*에 보복공격을 단행하는 한편, 범인의 부친을 체포
 - * 이스라엘은 철공소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의 로켓 제작소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과거부터 철공소를 자주 공격

<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 >

- (목표) 팔레스타인 內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 국가 건설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EU('05.12) 등
- (조직규모) 1,000명('20.6, 美 국무부)
- (연계세력) 이란(재정 지원), 헤즈볼라, 하마스
- (핵심인물) 지야드 알 나칼라(지도자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서안 · 가자지구, 이스라엘, 시리아 등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軍 및 주민 대상 로켓 공격, 인질납치
- (주요동향)
 - '19.5 하마스와의 공조, 가자지구에 로켓 700여발 발사(사망 4, 부상 80)
 - '20.2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로켓 20여발 발사